

재미와 감동

- 객수광 목사 / 2003. 4. 21 -

얼마 전 대학에서 디자인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 젊은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화적 코드를 꼽으라고 한다면 'Fun' 즉 재미라는 것입니다.

재미있으면 하지 말래도 하고 재미없으면 아무리 중요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강의도 재미가 있어야 듣고, 모임도 재미가 있어야 가고 공연 같은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겠지요.

무척 공감어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전할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진정으로 갈구하는 것은 단순히 Fun, 재미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fun과 함께 감동을 원합니다.

월드컵 때 시청 앞에 수 백만 명이 모여들었던 것도, 비를 맞아 가면서도 떠나지 않았던 것도 단순히 재미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함께 울게 만들 수 있었던 어떤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젊은이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민들레의 영토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지승룡 목사님이라는 분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카페를 새로운 목회지라고 생각하고 그 카페에 오는 젊은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느끼는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재미있는 그 카페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더 먹어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한번 돈을 내고 여러 번 커피나 음료수를 더 먹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가 고픈 학생들을 위해서 라면도 하나씩 그냥 먹게 해줍니다.

요즈음은 베이커리를 시작해서 빵도 줍니다. 책도 쌓아놓고 무료로 읽게 해 줍니다. 젊은이들은 또래들의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카페 안에 세미나 룸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모임 공간도 제공 해 주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은 상담도 해주고 은사 발견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감동시키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젊은이들이 감동했습니다.

카페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촌에서 10평짜리 공간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여덟 곳에 수천 평의 매장을 가진 카페로 성장했습니다. 일년에 이 카페를 다녀가는 사람이 약 500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바쁜 시간에는 한 시간씩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는데 여전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카페를 이렇게 성공시켰습니까?

고객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제공해 주기를 원했을 때 청년들이 감동한 것입니다.

지승룡 목사님은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고객만족 수준이 아니고 고객감동 수준도 아니고 고객 기절 수준이라고.

최소한 고객들이 지불한 돈의 10배정도 가치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돌아가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저는 청년사역을 위해서는 거룩한 낭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사랑으로 최고의 수준으로 순수하게 쏟아 부어줄 때 청년들의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들을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처럼 내어 놓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오천 명을 먹이시게 될 것입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